

광산구의회, '갑질 의원' 제명 여부 초미의 관심

공무원 상대 각종 이권개입 의혹... 윤리특위, 증인 출석 진상 조사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갑질 증언 잇따라... 11월 5일 징계수위 결정

광주 광산구의회가 공무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동료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벌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제명 처분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설문조사에서 갑질 문제가 불거진 광산구의회 A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8일 열린 광산구의회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선 관련 증인을 출석하도록 해 진상 조

사를 했으며,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광산구 공무원노조 비대위원장 등은 A의원의 갑질 사례를 조목조목 정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A 의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커피숍 근처에 개업한 또 다른 커피숍에 대해 허가 사항 등의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해충돌 문제가 지방의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현행법을 어긴 부분이라는 지

적이 나온다.

또 입찰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두둔하는 방법으로 공무에 개입하거나 갑질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거론됐다.

특히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병원 동행을 요구하거나 병원비를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는 갑질 내용까지 담겨 있다.

이 밖에도 "A 의원이 (커피숍) 개업했으니 찾아 가라 하고, 생일이라고 선물 강요하고, 선물 안 하면 자료 요구하고, 불필요한 민원 건수로 괴롭혔다"는 등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은 간접적으로 금품 및 물품을 요구하고 인사 및 수의계약 청탁과 관공서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챙겨갔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재선 의원인 A 의원의 이 같은 갑질 행위는 초선 의원 시절에도 문제가 됐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당시 구청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사적인 일을 강요해 6급 이하 공무원 수백명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광산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 같은 사유로 A 의원을 제명처분했으며, 현재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29일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갑질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11월 5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철도차량정비 기능장 2명 탄생 광주도시철도공사, 3년 연속 배출



심광식 과장 이용화 과장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철도차량정비기능장을 3년 연속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올해 실시된 철도차량정비 기능장 시험 결과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공사 차량팀 심광식 과장(45)과 이용화 과장(42)이 합격했다"고 14일 밝혔다.

철도차량정비기능장은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 정비와 검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 기능 인력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이번 합격으로 공사에서는 철도차량정비기술사 1명을 비롯한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전기기능장 등 2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전문 자격을 취득, 2호선 개통에 대비한 폭넓은 전동차 정비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전동차의 정비 공정과 구매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는 심과장과 이과장은 "철도안전법 개정 등에 따라 다양한 철도 차량의 정비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능장에 도전했다"면서 "학습동아리 등 공사측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좋은 결과를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광산구는 지난 8일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삼호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취업을 돕는 '청청플랫폼' 개소식을 갖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광산구, 청년 일자리 거점 '청청플랫폼' 개소

첨단복지관 내 등기... 취업 정보·AI모의면접 연습·면접 장장 대여

광주 광산구는 "지난 8일 청년 취업을 돕는 '청청플랫폼'을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 개소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청청플랫폼은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일플랫폼'과 '활력우장', '활력센터'로 구성됐다.

일플랫폼에서는 청년의 구직을 지원한다. 광주 지역 맞춤 일자리 정보를 볼 수 있는 '일자리 키오스크'와 인공지능 면접 연습과 결과를 분석해 제공하는 'AI모의면접 연습', 취업 정보 등을 출력할 수 있는 'PC정보검색 출력 서비스'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AI모의면접 연습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서 확대하고 있는 AI면접에 대비하고, 대인 면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들은 이를 이용해 연습·실전 모드로 답변, 면접 태도, 상황 대처 능

력, 직무적합도 등에 대한 실시간 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

활력우장에서 무료 면접 장장 대여로 청년의 구직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광산구 청년 1인에게 1회 3박4일 기간으로 연 10회 면접 의상을 대여한다. 대여는 광산구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청청플랫폼에는 또 청년들이 편하게 쉬며 공부 모임을이나 소모임도 할 수 있는 활력센터도 운영한다.

청청플랫폼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산구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직업 상담, 구직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청청플랫폼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일자리정책과와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유희 주차공간 공유... '주차전쟁' 푼다

광산구, '도심주차난 해소 기본계획' 수립... 공유 주차면 1100면 확보 계획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주차장 공유 등을 통해 도심 주차문제 해법 마련에 나섰다.

14일 광산구는 '시범지역 도심주차난 해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주차하기 편한 세상, 행복광산'을 비전으로, 2023년까지 우산동, 수안동, 광주송정역 일대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는 청사진이다.

광산구는 기존 주차장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교통체계를 바꾸는 방안 등 올바른 주차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을 골자로 각 시범구역별 맞춤형 과제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3개 지역에 총 2267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1100면은 유희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충당한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지난 4·9월 '도심주차난 해

소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광산구는 세 지역의 도심주차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 연구용역 결과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 같은 광산구의 도심 주차난 해소 노력은 지난해 8월 데스크포스 팀 구성으로 본격화됐다. 새로운 주차장 건립 보다는 유희 주차공간 나눔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온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월에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주차장 책담'도 신설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차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주차공간을



광주 광산구가 확대 조성중인 공유 주차장내에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광산구는 시범사업을 통해 1100면의 공유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공유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면서 "주차장 공유 정책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

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영유아 가정돌봄지원 서비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운영

광주시는 14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돌봄 영유아(6개월~36개월 미만)에게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난 12일부터 29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17곳이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이번 확대에 따라 자치구별로 동구 2, 서구 4, 남구 6, 북구 6, 광산구 11곳 등 29곳 32개관으로 확대됐다.

이용 대상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중인 만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다.

이용시간은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며, 주중(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말과 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사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를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봄을이 재밌게 읽는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담으로 칠해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수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외로움은 B형
-뉴클레오타이드
마경덕

사과상자의 이설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메타자본세카이어 시선
강대선

-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등근 것을 보면 아쁘다
- * 8월 발간 예정
장영주 시집